

텔레비전 다문화 프로그램 시청이 다문화수용성과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

허윤철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임영호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운용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함께 이주민과 외국인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개별 방송 프로그램이나 장르 유형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었던 데에 비해 전반적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정기적 시청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정기적 시청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의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은 모두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정기적 시청이 대상 집단에 따른 차별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갖는 학술적 함의를 논의하고 다문화 관련 콘텐츠 제작에서 차별적 수용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도 제안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문화계발 효과, 정기적 시청 효과, 다문화수용성, 차별적 수용성

* ych0719@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yhoim@pusan.ac.kr

*** yyongcho@gmail.com

1. 문제 제기

최근 한국사회는 다양한 인종이나 국적, 종족(ethnic) 배경의 구성원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다문화 집단을 다룬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학에서 다문화 현상을 다룬 연구는 주로 미디어 재현 양상 분석에 주력할 뿐,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접촉경험이 다문화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연구는 아직 그다지 많지 않다(이현정 외, 2013; 정연구 외, 2011; 홍숙영, 2013). 다문화에 대한 태도 변인 역시 다문화수용성이라는 단일한 개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점에 주목해 이 연구는 텔레비전을 통한 다문화 콘텐츠 접촉 효과의 차이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우선, 최근 들어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이 다문화 현상을 다루는 방식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미디어는 인종과 민족 묘사에서 일정한 편향을 지니며 이 편향이 특정한 인종과 민족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생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Dixon & Azocar, 2006; Mastro, 2003; Mastro & Stern, 2003 등). 국내 연구에서도 가부장주의, 이주민의 타자화, 온정주의 등을 방송의 다문화 집단 재현에서 주요 특징으로 지적하였다(권금상, 2008, 2013; 김경희, 2009; 김세은·김수아, 2008; 양정혜, 2007 등).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서구의 사례와 달리 국내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은 반드시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이재승·박경숙, 2013; Yi & Jung, 2015).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이주민이나 외국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포맷도 다양해지고 있다. 초기의 다문화 콘텐츠는 대부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아시아권 출신 결혼이주여성 이야기를 다룬 정형화된 다큐멘터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예능 프로그램 등으로 장르가 확장되고 있다. 출연진 구성도 다변화하여 외국인 유학

생이나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과 체류 목적을 가진 외국인이 출연하며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이은영, 2013).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이 다문화에 대한 수용자들의 실제 인식이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대다수의 다문화 콘텐츠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표방하며, 실제로도 이러한 콘텐츠 시청이 부분적으로는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몇몇 선행 연구(이현정·안재웅·이상우, 2013; 정연구·송현주·윤태일·심훈, 2011; 홍숙영, 2013 등)는 확인하였다. 하지만 다문화 콘텐츠 시청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효과 개념을 좀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디어 이용이 다문화 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미디어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교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강화할 수도 있다(허윤철·임영호, 2015). 이와 더불어 다문화 콘텐츠 시청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가 대상 국가나 민족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 콘텐츠 노출이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국가 출신에 대한 수용성과 이해는 넓혀주지만 사회적 거리감이 먼 지역 사람들에 대한 수용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문화 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높아지면서도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성향은 강화되는 모순된 효과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나 인식 차원을 좀 더 세분화해서 다문화수용성과 차별적 수용성이라는 개념으로 미디어 이용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불특정 이주민 집단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다문화수용성 차원과 더불어, 출신 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수용성을 차별적 수용성으로 개념화해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 효과 분석에서 미디어 이용 외에도 인구학적 속성이나 정치 성향 등 수용자 관련 변인들을 고려했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변인들이 다문화수용성 뿐 아니라 차별적 수용성 발생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라는 용어 역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용례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원래 인종적, 종족적 구성의 다양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다문화란 ‘다종족’(polyethnic), ‘다인종’(multiracial) 등의 유관어들과 혼용되지만 오늘날에는 이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다문화라는 단어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 용어는 다양한 집단이 각자 특정한 문화적(종족적) 집단에 소속된다는 의식을 스스로 형성하고 있을 때 사용된다(Watson, 2000, p.2). 이처럼 다문화란 혈통보다는 구분되는 문화적 집단 정체성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폭넓은 범위에 적용 가능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규정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주민을 지칭하는 경멸적 의미로 통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에 가깝게 이주민 뿐 아니라 장기 체류 외국인, 탈북자 등 한국 사회에 유입되는 다양한 집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규정한다.

2. 이론적 배경과 관련 연구

1) 다문화수용성과 차별적 수용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의 거주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외국 이주민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사회적, 정책적 쟁점으로 부각하는 배경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다문화수용성이다(이상길·안지현 2007; Castles, de Hass, & Miller, 2013, p.157; Kymlicka, 2003).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인종, 출신국, 문화 등의 편견 없이 타구성원을 자신과 동등하게 인

정하고, 구성원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는 태도로 정의된다(안상수 외, 2012; 윤인진·송영호, 2011).

다문화수용성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거론된 요소들은 다문화에 대한 태도(임동진·박진경, 2012), 다문화 지향성(황정미·김이선·최현·이동주, 2007),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방정도(Schalk-Soekar & Van de Vijver, 2008; 황정미, 2010),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안상수 외, 2012; 정의철, 2013), 이주민에 대한 거부와 회피(황정미 외, 2007), 국민정체성(윤인진·송영호, 2011) 등이다. 선행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다문화수용성이 다양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추상성이 높은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황성욱·조윤용·이철한, 2014). 개념적 추상성 이외에도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적 한계점은 이주민이라는 ‘대상’ 자체에서 비롯된다.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적 정의에서 언급된 ‘타구성원’은 출신국, 인종, 민족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을 통칭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요인인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방 정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이주민에 대한 거부와 회피 정도는 대상 이주민이 어떠한 배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대상 이주민의 인종적, 민족적 특성, 종교, 출신국, 체류목적 등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김은미·조윤용·임영호·송보영, 2015).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미국인과 유럽인에 대해 드러내는 이해와 개방정도, 차별과 편견 정도는 남아시아인에 대한 그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민의 배경적 특성에 따라 차등화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다문화수용성 개념만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민의 배경적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자주 인용되는 개념은 사회적 거리감이다. 사회적 거리감은 ‘우리’와 ‘타자’간의 심리적 거리이다. 외국인이나 그 국가의 여러 특성이 자신이 속한 집단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때 사회적 거리감은 줄어들고, 다르다고 인식하

면 사회적 거리감은 멀어진다(Osbeck, Moghaddam, & Perreault, 1997). 몇몇 선행 연구는 사회적 거리감을 이용해서 한국인의 차별화된 수용성을 실증적으로 측정했다.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실제로 인종과 민족 집단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인, 유럽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은 가깝게 나타났으나, 남아시아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은 가장 멀게 나타났다(민지선·김두섭, 2013).

이주민의 출신국에 따라 한국인과 이주민 집단 사이에 작용하는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에 따라 한국인의 인식과 행동이 차별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외국인의 출신국적에 따라 외국인 범죄 관련 기사의 댓글 수와 댓글의 논조가 달라질 수 있고(김은미 외, 2015), 이주민에 대한 차별화 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성 댓글에 대한 영향력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조윤용·임영호·허윤철, 2016). 블래록(Blalock, 1967)은 새로운 집단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수용자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나빠지는 현상을 집단위협가설(group threat hypothesis)로 설명하였는데, 집단위협가설은 이주민의 인종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히스패닉계와 흑인의 인구 비율이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치리코스 외(Chiricos et al., 2001), 팍스(Fox, 2004), 아이틀과 테일러(Eitle & Taylor, 2008), 킹과 휠락(King & Wheelock, 2007) 등의 연구는 인종 구성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사회적 거리감은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대상 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지만, 대상에 따른 차별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이는 오로지 특정한 대상 집단별로 수용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에만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민의 배경 특성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다문화수용성 개념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에 대한 차별적 태도 특성을 일반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를 차별적 수용성으로 개념화해서 별도로 변인화하였다.

차별적 수용성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발생한다. 고정관념은 인종, 민족, 문화 또는 지역에 대한 정형화된 생각으로 왜곡되고 부정확한 지식과 인식에서 비롯되며(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2011), 차별적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안상수 외, 2012). 고정관념은 선형적인 태도가 아니라 직·간접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 간접 경험과 학습의 경로 중에서 특히 미디어는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기도 하고 확산시키기도 한다. 즉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인종적·문화적 소수집단을 왜곡된 방식으로 그려내 특정한 고정관념을 확산시키고 이들의 주변화를 부추기기도 한다(이현정 외, 2013; 정의철·이창호, 2007).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은 사회적 거리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김희자, 2009; 우충완·우형진, 2014). 따라서 이 연구는 다문화 콘텐츠의 효과를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차원에서 살펴보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상 집단에 따라 이 수용성이 차등화되는 양상, 즉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2) 미디어 이용과 다문화

(1) 수용자 요인의 영향

다문화수용성처럼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개인 수준의 다양한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학력, 소득수준,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socioeconomic status; SES)과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주 언급하였다.

이주민의 유입은 노동시장의 경쟁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학력이나 소득수준 등의 인구학적 변인이 주요인으로 다루어졌다. 에세와 동

료들(Esses et al., 2001)의 조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민과 노동시장에서 동일 자원을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주민 유입에 더 긍정적이라고 보았다. 반면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이주민 유입으로 경쟁 압박이 높아지고 자신들의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수용 범위도 좁아진다고 보았다. 에세와 동료들(Esses, et al., 1998; Esses, et al., 2001)은 ‘자원 압박’의 관점에서 이주민 증가가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이 접근에서는 이주민 유입이 개인의 자원 접근성을 얼마나 제한하며 이해관계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이문화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안상수 외(2015)의 조사 역시 소득수준이 낮고 저학력일수록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낮은 것을 발견했다. 월가구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2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 평균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낮았고, 직업별로도 단순노무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 및 조립종사자의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이주민들과의 경쟁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다문화수용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원숙연(2011)의 조사 역시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시장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은 저학력 집단에서 외국인 정책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재완(2013)의 조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나 무직 상태의 노동자보다 외국인 이주 정책에 더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요인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이외에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고 유연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기존 고정관념의 고착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유입된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Espenshade & Hempsted, 1996; Palmer, 1996 등). 황정미 외(2007)의 조사에서는 20~30대가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 지향성을 보이는데 반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는 제한적인 지향성과 부정적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안상수 외(2015)의 조사에서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자형과 김경근(2012)의 연구에서도 40세 미만에 비해 40세 이상 집단에서 종족적 정체성이 강하였으며, 윤인진과 송영호(2011)의 조사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다문화 지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성별 또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요인으로 다루어졌다. 후드와 모리스(Hood & Morris, 2000), 판토자(Pantoja,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을 잠재적 위협으로 느끼는 정도가 약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국인에게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외에 살펴볼 개인 수준의 변인은 사회적 이념 성향이다. 사회적 이념 성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는 대체로 평등주의(equalitarianism)나 인도주의(humanitarianism) 등의 가치 성향과 연관지어 논의되었다(Pantoja, 2006).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이념 성향 변인을 세분화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축으로 하는 이념 성향 지각을 주된 변인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국내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대체로 스스로 진보적 이념 성향을 지닌다고 지각할수록 다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였다. 예컨대 황정미(2010)의 조사에서는 진보적 성향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았고, 윤인진과 송영호(2011)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접촉 정도 또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인진과 송영호(2011)의 조사는 외국방문 경험과 국내 거주 외국인과의 교류가 다문화 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송유진(2013)은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줄이고 수용 정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안상수 외(2012)의 조사에서도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단순 접촉 경험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접촉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올포트(Allport, 1954)의 접촉 이론(contact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외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넓어

지고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감소하며, 이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친구 중에 외국인 친구가 있는 사람,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으로 나타났다(박혜숙·윌미순, 2010; 인태정, 2009).

하지만 외국인 접촉 경험이 이와 다른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안상수 외(2012)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국 이주민과의 단순 접촉 경험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만, 이주민을 ‘매우 자주 목격’하거나 ‘매우 자주 대화’하는 경우 오히려 다문화수용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주민을 가족이나 친척으로 두고 있는 사람보다 직장/학교 동료 중에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있는 사람의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다문화접촉 빈도와 관계없이 다문화수용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접촉 빈도보다 어떤 형태의 관계 속에서 접촉이 이루어지는 지가 더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나아가 외국인 접촉 경향이 정반대 효과를 유발한다는 결과도 있다. 예컨대, 박현주 외(2015)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접촉을 비롯한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노성훈(2013)은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인식이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것을 밝혔다. 즉 외국인 접촉 경험의 빈도뿐 아니라 경험의 질적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력, 소득수준, 연령, 성별, 다문화의 경험 등과 같은 개인 수준의 요인들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요인 중 소득수준이나 직업 등은 이주노동자가 개발도상국 출신인지, 선진국 출신인지에 따라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송영호·양대영, 2010). 거주 지역의 외국인 구성이 높아지면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주민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강해지지만, 미국과 유럽 출신 이주민에게는 이러한 배타적 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선행 연

구에서 입증되었다(민지선·김두섭, 2013). 동일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주민에 대한 포용성은 이들의 인종이나 직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선행 연구들의 상반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타 구성원’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개인 수준의 요인들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민의 인종적·문화적 배경, 출신국, 체류목적, 직업군 등에 따라서 개인 수준의 요인은 다른 방향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지만, 이 같은 결과 역시 이주민의 배경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민지선과 김두섭(2013)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일본인, 유럽인, 그리고 미국인 등 선진국 출신의 이주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높은 연령층에서는 조선족에 대해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결과는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 개인 수준 변인의 영향력은 특정 인종적 문화적 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관용성과 배타성이 특정 인종적 문화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다문화수용성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의 양상을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을 말해준다. 이렇듯,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은 한국인의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나아가 이러한 차이점은 이주민의 배경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나타난다. 선행연구들의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는 다문화수용성 개념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다문화수용성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배경 특성에 따른 차별적 수용성 개념이 추가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연구 문제 1. 수용자 관련 변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수용자 관련 변인이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 미디어 이용의 영향

그 동안 다문화 연구에서 미디어 이용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반면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내 미디어 다문화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류는 이주민 재현 연구이다. 이 선행 연구들은 국내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이 타자화, 온정주의, 가부장주의 등의 특징을 띤다고 지적했다(권금상, 2008, 2013; 김경희, 2009; 김세은·김수아, 2008; 김진희 외, 2010; 양정혜, 2007; 이인희·황경아, 2013; 황영미, 2011 등).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 재현 양상이 제 수용자의 인식 변화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까지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 효과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개별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효과를 살핀 연구다(김재휘·서중희, 2006; 박신영, 2014; 홍숙영, 2013). 이러한 연구 중 박신영(2014)은 KBS1의 <러브 인 아시아>와 EBS의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의 각 한편씩을 실험 처치물로 하여 각 프로그램을 시청한 두 개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은 정서적 태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주체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일정 기간 동안 방영되는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 여부를 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는 단기적 효과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용자가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은 이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전반적인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 정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친 영향을 살핀 연구다(이현정 외, 2013; 정연구 외, 2011). 이러한 접근은 방송 미디어가 구성하는 전반적 상징 환경의 영향력이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들 중 이현정 외(2013)는 주간 교양 프로그램 5개, 단편 다큐멘터리 5개, 영화 5개의 다문화 콘텐츠 시청량이

수용자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다문화 콘텐츠 시청량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중 적극성과 개방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정연구 외(2011)는 수도권과 지역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 관련 뉴스 노출 정도를 5점 척도화하여 수용자의 기억과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나아가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 관련 뉴스 노출이 높을수록 기억 정도가 높았고 이는 부정적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다문화지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다문화 관련 개별 방송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전자의 방식 보다는 전반적인 방송 프로그램 노출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후자의 접근을 채택하고자 한다. 여기서 미디어 이용 변인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노출을 선택한 것은 여전히 텔레비전이 이용자의 외부 환경 인식 형성에서 중요한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언론수용자 의식조사(2017)에 따르면 텔레비전 이용률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텔레비전은 미디어 이용자의 92.8%가 이용하는 가장 보편적 매체다. 또한 허윤철과 임영호(2016)의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 이용자들은 외국인 범죄 이슈 등에서 미디어에 매개된 경험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특히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여타 미디어 보다 훨씬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개인 수준의 지각 보다 사회 수준의 지각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개별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청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하더라도 수용자들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사회적 분위기를 판단하는 가장 유력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노출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 효과가 아니라 전반적 방송 노출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문화계발효과 이론(cultivation theory)의 접근을 따른 것이다. 거브너와 그로스(Gerbner & Gross, 1976)는 특정한 방송 프로그램 메시지가 시청자의 사회적 태도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더라도 방

송 미디어가 구축하는 전반적 상징 환경(environment of symbols)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효과는 강력할 수 있다는 가설 아래 전반적 방송 노출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거브너와 동료들(Gerbner et al., 1980)은 주로 텔레비전 폭력물의 효과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텔레비전을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중시청자 집단(heavy viewers)은 간헐적으로 시청하는 경시청자 집단(occasional viewers)에 비해 세상을 과도하게 비열하고 위험한 곳으로 지각하는 일종의 사회적 망상(social paranoia)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애플(Appel, 2008)은 텔레비전 드라마와 코미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just-world beliefs)이 더 강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연구 모두 텔레비전이 묘사하는 현실이 수용자들의 실제 현실에 대한 지각을 배양하는 효과를 검증했다. 텔레비전의 장기적 효과에 초점을 두는 것은 문화계발효과 연구의 전반적인 추세다. 모건과 새너한(Morgan & Shanahan, 1997)은 20년간 진행된 문화계발효과 연구들을 메타 분석(meta analysis)했는데, 폭력물, 성역할, 정치 성향 등의 주제에서 중시청과 경시청의 배양 효과 차이(cultivation differential)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상기 연구들처럼 이 연구가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의 장기적 노출량을 변인으로 설정하고 선행 연구의 틀을 적용하는 데는 난점이 있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매우 낮아, 전통적인 중시청과 경시청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조사 대상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은 AGB Nielsen를 기준으로, JTBC 비정상회담 3~5%, JTBC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3%, KBS1 이웃집 찰스 8~10%,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1~2%에 불과하다²⁾. 이 점을 감안해 이 연구에서는 문화계발효과 이론의 중시

2) 비정상회담 시청률(2018, 7, 18). URL: <https://bit.ly/2zZlkj9>;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2018, 1, 26). URL: <https://bit.ly/2mBjrRz>; 이웃집 찰스(2018, 7, 11). URL: <https://bit.ly/2LzQeok>; 이제 만나러 갑니다(2018, 7, 14). URL: <https://bit.ly/2O9tlGC>

청, 경시청 개념 보다는 시청 의도와 상관없이 한번이라도 시청을 한 적이 있는 간헐적 시청(occasional viewing)과 한 달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정기적 시청(regular viewing)을 분류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의 효과 차이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할 것이다.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3.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은 수용자의 다문화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4.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은 수용자의 차별적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및 표본 구성

자료 수집을 위해 리서치 전문업체(주)엠브레인)에 등록된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30일에서 6월 5일에 걸쳐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 총 730명 중 여성이 366명(50.1%), 남성이 364명(49.9%)이었고, 연령 분포는 18~29세 178명(24.4%), 30~39세 180명(24.7%), 40~49세 188명(25.8%), 50~64세 184명(25.2%)으로 평균 연령은 39.47세($SD=11.88$)였다. 학력 분포는 고졸 이하 126명(17.3%), 대학교·대학원 재학 96명(13.2%), 대졸 451명(61.8%), 대학원졸 이상 57명(7.8%)이었다.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월평균 가구 소득(이자, 임대 소득 포함)을 100만원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대략적인 분포를 보면 300만원 미만 200명(27.4%), 300~500만원 251명(34.4%), 500만원 이상 279명(38.2%)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와 통계 분석은 PASW 18.0을 사용하였다.

2) 변인의 측정

(1) 이념가치관

이념가치관은 알트메이어(Altemeyer, 1981)가 개발한 권위주의 척도를 바탕으로 변상호(2014)가 한국 미디어 이용자들의 정치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참고해 변인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방식은 여전히 삶에 최선의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 현실에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정부의 권위 있는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 “사람들이 부적절한 내용을 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보도 내용을 미리 검열할 수도 있다”, “국가의 안위는 개인의 안위보다 중요하다”라는 진술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각각 측정하였다. 여기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이념가치관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된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한 평균값은 3.50($SD=1.22$)으로 중간값 보다 낮았으며, 문항간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82로 높았다.

(2) 외국인 직접 접촉 경험

외국인 직접 접촉 경험은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안상수 외, 2012)에서 개발한 문항을 바탕으로 허윤철과 임영호(2016)가 미디어 수용자의 외국인 접촉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다”, “나는 해외여행을 많이 한 편이다”, “나는 외국인과 자주 접촉하는 편이다”, “나는 외국인과 대화를 해본 경험이 많다”, “나는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많이 보는 편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각각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국인 접촉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된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한 평균값은 3.52($SD=1.17$)로 중간값 보다 낮았으며, 문항간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81로 높은 편이었다.

(3)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 변인은 한 번이라도 시청한 적이 있는 간헐적 시청(occasional viewing)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정기적 시청(regular viewing)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대상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이 대부분 5% 미만으로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중시청(heavy viewing)과 경시청(light viewing)을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하루당 몇 분’과 같은 자기보고식 응답은 오히려 기억의 부정확성 때문에 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시청한 프로그램과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여 빈도를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이 연구가 개별 방송 프로그램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송이 구축하고 있는 전반적인 다문화 상징 환경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측정 방법을 설명하면, 간헐적 시청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 시점인 2016년 5월 기준 방영 중인 총 14개의 다문화 프로그램(KBS1 ‘러브 인 아시아’, MBC ‘우리는 한국인-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MBC ‘헬로 이방인’, MBC ‘우리 결혼했어요-세계판’, SBS ‘글로벌 붐어빵’, KBS1 ‘이웃집 찰스’, KBS2 ‘부부 공감 랭크쇼 내편 남편’, KBS1 ‘리얼 한국 정착기 이방인’, SBS ‘글로벌 연애의 정석 99’, JTBC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JTBC ‘비정상회담’, 채널A ‘잘 살아보세: 통일준비생활백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TV 조선 ‘남남북녀’) 중 한번이라도 시청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을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시청한 적 있음=1, 시청한 적 없음=0). 그리고 정기적 시청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한 달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시청한 프로그램을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정기적으로 시청함=1, 정기적으로 시청하지 않음=0). 따라서 합산한 값은 해당 프로그램의 편수를 의미하며 최소 0부터 최대 14까지의 범위 내 값을 가진다. 응답 결과 단순 시청 프로그램의 평균 편수는 4.10($SD=2.65$)편이었고, 정기적 시청 프로그램의 평균 편수는 1.85($SD=1.55$)편이었다.

(4)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은 황성욱 외(2014)가 개발한 다문화수용성 측정 문항을 바탕으로 허윤철·임영호·조운용(2017)이 한국의 국가와 지역 수준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외국인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겠다”, “나는 외국인주민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찬성한다”,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역코딩)”,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피하고 싶다(역코딩)”,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외국인주민들은 한국과는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역코딩)” 등의 진술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각각 측정하였다. 이 변인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된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한 평균값은 4.48($SD=.93$)로 중간값 보다 높았으며, 문항간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71로 양호하였다.

(5) 차별적 수용성

차별적 수용성은 불특정한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일반적 수용성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수용성을 의미한다. 차별적 수용성 측정을 위해 먼저 민지선과 김두섭(2013)의 문항을 바탕으로 이주민 출신국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원국적 비율을 고려해 동남아시아(필리핀, 베트남, 태국), 남아시아(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조선족, 미국인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사회 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 방문에서 결혼에 대한 관용에 이르는 7단계의 보가더스 척도(Bogardus Scale)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이 전체 측정치의 분산 값을 변인화하였다. 즉 분산 값이 작으면 대상 국가별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차별성이 작다는 뜻이고, 분산 값이 크면 대상 국가에 따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연구 결과

〈연구문제 1〉은 수용자 관련 변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수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에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 소득, 이념가치관 등의 배경 변인과 외국인 직접 접촉경험 변인을 투입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모형 1 참조). 연령, 성별, 학력, 소득으로 구성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이념가치관 변인, 외국인접촉경험 변인을 투입한 결과 총 설명력은 3.2%($R^2=.032$)이었다($F=3.926$, $p<.01$).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었다. 이념가치관은 보수적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았고($\beta=-.155$), 외국인접촉경험은 많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았다($\beta=.107$).

표 1.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모형 1		모형 2	
	표준화 β	t	표준화 β	t
연령	-.002	-.057	-.005	-.121
성별(여성=1)	.031	.829	.028	.763
학력	.007	.179	.010	.249
소득	.003	.080	-.004	-.107
이념가치관	-.155***	-3.966	-.152***	-3.896
외국인접촉경험	.107**	2.751	.101*	2.567
$R^2(\%)$	3,2			
간헐적 시청			.090 [†]	1.832
정기적 시청			-.043	-.874
Incremental $R^2(\%)$.5	
Total $R^2(\%)$	3,2		3,6	
Adjusted $R^2(\%)$	2,4		2,6	
회귀모형 적합도(F)	3,926**		3,392**	

[†] $p<.10$, * $p<.05$, ** $p<.01$, *** $p<.001$

〈연구문제 2〉는 수용자 관련 변인이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차별적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대상 지역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조선족, 미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후, 전체 사회적 거리감 평균의 분산 값을 차별적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변량으로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대상 지역 간 분산 값이 작을수록 차별적 수용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분산 값이 클수록 차별적 수용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차별적 수용성을 측정한 후 차별적 수용성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별적 수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에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 소득으로 구성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이념가치관, 외국인 접촉경험 변인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표 2〉 모형 1 참조). 그 결과 연령, 성별, 학력, 소득, 이념가치관, 외국인접촉경험의 설명력은 4.6%($R^2=.046$)였다($F=5.825, p<.00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beta=-.151$), 소득은 높을수록($\beta=.106$) 차별적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념가치관은 진보적일수록 차별적 수용성이 높았다($\beta=-.080$).

표 2.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이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모형 1		모형 2	
	표준화 β	t	표준화 β	t
연령	-.151***	-3.922	-.166***	-4.337
성별(여성=1)	-.035	-.938	-.045	-1.227
학력	-.068 [†]	-1.776	-.059	-1.564
소득	.106**	2.798	.093*	2.469
이념가치관	-.080*	-2.078	-.086*	-2.235
외국인접촉경험	.025	.656	.004	.099
R^2 (%)	4.6			
간헐적 시청			.041	.856
정기적 시청			.127**	2.636
Incremental R^2 (%)			2.4	
Total R^2 (%)	4.6		7.0	
Adjusted R^2 (%)	3.8		6.0	
회귀모형 적합도(F)	5.825***		6.778***	

[†] $p<.10$, * $p<.05$, ** $p<.01$, *** $p<.001$

〈연구문제 3〉은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다. 방송 미디어가 구축하는 전반적 상징 환경은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 효과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Gerbner & Gross, 197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 정도가 아니라 전반적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노출 정도를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으로 구분해 측정하여 변인화한 후 〈연구문제 1〉의 회귀모형에 추가로 투입하였다(〈표 1〉 모형 2 참조). 분석 결과 투입한 간헐적 시청, 정기적 시청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 유의 수준 .10을 적용했을 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간헐적 시청이 다문화수용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3〉의 회귀모형에서 독립 변인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진단한 결과 독립 변인들 간의 공차한계는 최소값이 .51, 분산팽창요인(VIF)은 최대값이 1.81로 다중공선성 진단기준(공차한계) .10; 분산팽창요인(10)을 충족하여 회귀모형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연구문제 4〉는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이 수용자의 차별적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다. 〈연구문제 2〉의 회귀모형에 간헐적 시청, 정기적 시청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4%($R^2=.024$) 높아졌다. 투입한 변인 중 다문화 프로그램의 정기적 시청만 유의하였으며, 정기적 시청 정도가 증가할수록 차별적 수용성 또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beta=.127$).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4〉의 회귀모형에서 독립 변인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의 최소값이 .55, 분산팽창요인(VIF) 최대값이 1.81로 다중공선성 진단 기준을 충족하여 회귀모형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이슈로 부각하면서 이주민과 외국인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개별 방송 프로그램이나 장르 유형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었지만 정기적이고 전반적인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의 누적적 영향력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장기적 시청 효과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과 더불어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이용 변인, 즉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이 다문화수용성뿐 아니라 대상 집단에 따른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방송 프로그램 접촉 요인에서는 문화계발 이론의 논리(Gerbner & Gross, 1976)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 시청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송 노출과 시청을 설명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수용자의 어떠한 배경 요인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연령, 성별, 학력,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념 가치관은 진보적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인 스스로 진보적 이념 성향이라고 생각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장승진, 2010; 한준·설동훈, 2006 등). 또한 외국인 직접 접촉 경험 정도는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윤철과 임영호(2015)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접 경험 의존도가 낮은 범죄 이슈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가 다룬 다문화 이슈에서는 수용자의 실제 생활에서의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문제 2〉는 수용자의 배경 요인이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다문화수용성이 불특정한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일반적 수용성을

의미하는 지표라면, 차별적 수용성은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수용성을 의미하는 지표다. 분석 결과 연령은 낮고, 소득은 높을수록, 이념 가치관은 진보적일수록 차별적 수용성이 높았다. 이번 연구에서 연령은 다문화수용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데 반해, 차별적 수용성은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안상수 외, 2015; 황정미 외, 2007). 이를 종합하면 낮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다문화수용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개방적 태도는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모순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 연구결과는 확인해준다. 민지선과 김두섭(2013)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선진국 출신의 이주민에 대해서는 우호적 태도를 보이지만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주민에게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차별적 성향이 높다는 결과 역시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 진보적 성향과 다문화수용성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있었지만(윤인진·송영호, 2011; 황정미, 2010), 진보적 성향인 사람이 오히려 차별적 수용성이 높다는 결과는 전혀 새로운 발견이다. 이처럼 다문화에 대해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태도는 양립 불가능한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모순된 결과는 다문화에 대한 태도의 차원들을 좀 더 세분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차별적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결과 역시 이번 연구에서 새로 확인된 현상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소득수준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의 관계를 자원 경쟁의 관점에서 해석했다(Esses, et al., 1998; Esses, et al., 2001). 다시 말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제한된 노동시장에서 경쟁 악화를 우려해 다문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비록 다문화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고소득층이라 할지라도 출신국별로 우호적 태도가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차별적 수용성을 보일 수 있다. 물론 인구학적 변인과 차별적 수용성의 관계에 관해서

는 아직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 주제에 관해 차후 연구가 더 나와야만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외국인 직접 접촉 경험은 차별적 수용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외국인 직접 접촉 경험이 대상 집단별로 차별화된 수용성을 높이는 부정적 효과는 낳지 않고,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만 미친다는 것은 흥미로운 발견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과 접촉 기회와 상호작용이 많아질수록 이질적 외부 집단에 대한 편견이 약화된다는 접촉 가설(Allport, 1954)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는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이 각각 다문화 수용성과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분석 결과,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은 모두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간헐적 시청은 미약하게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반대로 다문화 프로그램의 간헐적 시청은 차별적 수용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기적 시청은 차별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프로그램을 간헐적으로든, 정기적으로든 폭넓게 시청하는 사람에게서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많은 다문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대상 집단에 따른 차별적 수용성이 높아지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시청 패턴과 무관하게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국내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취지가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에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정기적 시청이 차별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발견이자 시사점이 큰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 미디어가 다문화를 상대적으로 호의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재승·박경숙, 2013; Yi & Jung, 2015)와도 언뜻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에서는 온정주의처럼 긍정이나 부정과 같은 이분법적 틀로 파

악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는데, 이 때문에 위와 같이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또한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의 내용은 다양한 양상으로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문화계발 이론의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미디어가 재현하는 현실에 대한 인지나 학습(learning)이 곧 실제 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현실 구성(construction)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호킨스와 핀그리(Hawkins & Pingree, 1982)는 문화계발 과정을 ‘학습’과 ‘구성’의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손현정과 이종혁(2012)이 이들의 논의를 적용해본 결과, 성범죄 관련 TV 뉴스 노출이 수용자들의 TV가 재현하는 현실에 대한 학습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수용자들의 실제 세계에 대한 구성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 내용이 실제 시청자들의 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계발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의 내용이 실제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거브너와 동료들(Gerbner et al., 1980)이 문화계발 효과론에 ‘공명’(resonance) 개념을 도입한 것은 텔레비전 시청의 효과가 수용자의 선행 지식과 현실에서의 경험 같은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컨대 돕과 맥도날드(Doob & Macdonald, 1979)는 위험한 도시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에게서 TV 속 범죄 재현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우와 도미니크(Woo & Dominick, 2003)의 연구는 이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특정한 이슈를 다룬 시사 프로그램의 효과가 증폭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수용자의 선행 경험과 지식 정도 등을 중재 변인으로 설정한 문화계발효과 연구들에서도 효과의 방향성까지 일관성 있게 예측하지는 못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의도된 취지는 수용자들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미디어가 현실을 왜곡해서

재현하거나 다문화 집단을 차별적으로 재현하는 데서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 중 시청률이 높았던 〈비정상회담〉의 경우, 출연자의 국적과 인종 구성이 실제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구성비와 차이가 크고, 출연진의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가 다수를 이루는 이주민의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김태영·윤태진, 2016). 또한 일부 선행연구들은 방송의 이주민 재현에서 출신국에 따른 차별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심훈, 2012, 2013; 주혜연·노광우, 2013; 홍지아·김훈순, 2010). 예컨대 심훈(2012)은 KBS 다큐의 결혼이주여성 묘사에서 출신국별 차이를 살펴봐왔는데, 영미 출신은 자기 정체성이 강한 존재로 묘사하는 데 비해, 비영어권 출신은 가부장적 동화주의의 틀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출신국별로 차별화된 미디어 재현을 장기적으로 접촉할 경우,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대하는데 있어 출신국에 따른 차별적 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물론 위의 연구 결과만으로는 이 가능성을 검증할 수 없지만, 앞으로 더 규명할 필요가 있는 연구 주제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시청의 효과가 차별적 수용성을 강화하는 등 본래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는 크게는 한국 다문화 정책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 캐슬즈 등(Castles, et al, 2013)은 이주민 통합정책을 동화 모형, 차별적 포섭과 배제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유형화하였는데, 이종두와 백미연(2012)은 이러한 범주화에 기초하여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대체로 차별적 포섭과 배제 모형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설계에서도 재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이해의 대상으로 그리기도 하고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전략시키기도 하는 등 언뜻 우호적으로 보이는 태도 속에 차별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문화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 프로그램의 정기적 시청이 다문화수용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차별적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

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이 표방하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차별적 포섭과 배제 모형과 유사한 기조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연구결과가 시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문화 관련 콘텐츠의 기획 단계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와 함께 차별적 수용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변인을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장르를 세분화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이 재현하는 집단 특성에 따라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또 수용자들의 다문화 접촉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수용자의 실제 경험과 미디어 접촉의 효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도 더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TV 시청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상의 ‘다시보기’와 ‘버즈’순위 등을 반영하여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효과 연구의 확장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금상 (2008). 미디어에 재현되는 이주아동에 관한 연구: 영상물에 나타난 이주아동의 형식·내용·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3권 2호, 31-78.
- 권금상 (2013).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이주여성’ 재현의 사회적 의미: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6권 2호, 39-81.
- 김경희 (2009). 텔레비전 뉴스 내러티브에 나타난 재한 이주민의 특성. <한국방송학보>, 23권 3호, 7-46.
- 김세은·김수아 (2008). 다문화사회의 미디어 재현: 외국인 노동자 보도분석. <다문화사회연구>, 1권 1호, 39-73.
- 김은미·조윤용·임영호·송보영 (2015). 다문화 범죄 보도에서 기사 구성 방식과 출신국에 대한 태도가 댓글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권 6호, 107-136.
- 김재휘·서종희 (2006). 일본 TV 드라마 시청이 일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권 4호, 35-46.
- 김진희·오윤호·이수안 (2010). 대중매체에 나타난 타자 재현 양상 연구: 2000년대 TV와 현대소설을 대상으로. <탈경계 인문학>, 3권 3호, 85-119.
- 김태영·윤탈진 (2016).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속의 다문화주의: JTBC <비정상회담>의 ‘기미가요’ 논란을 통해 본 다문화주의 담론의 취약성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77호, 255-288.
-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 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권 2호, 51-89.
- 김희자 (2009). 영상매체를 통해 지각된 청소년의 외국인인식과 사회적 거리감. <동서언론>, 12호, 137-164.
-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018, 1, 26). URL: [https://ko.wikipedia.org/wiki/내_친구의_집은_어디인가_\(텔레비전_프로그램\)](https://ko.wikipedia.org/wiki/내_친구의_집은_어디인가_(텔레비전_프로그램))
- 노성훈 (2013).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95호, 1-34.
- 민지선·김두섭 (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권 4호, 71-94.
- 박신영 (2014). 다문화 관련 TV프로그램 시청과 다문화 인식, 태도 및 제3자 효과: <러브 인 아시아>와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8권 6호, 79-119.
- 박현주·성정화·손혜란·이민영·조현민·박신규 (2015). 다문화 접촉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구 지역 대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7호, 92-117.
- 박혜숙·원미순 (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 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제24권 2호, 303-325.
- 변상호 (2014). 정치 팟캐스트 이용과 정치성향의 상호작용이 기성 미디어 대체와 보완에 미친 영향. <한국언론학보>, 58권 6호, 90-118.
- 비정상회담 (2018, 7, 18). URL: <https://namu.wiki/w/비정상회담>
- 손현정·이종혁 (2012). 성범죄 보도가 여성 수용자의 사회적 현실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6권 2호, 357-378.
- 송영호·양대영 (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32-149.
- 송유진 (2013).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외국인 수용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권 3호, 1-19.
- 심훈 (2012). KBS <인간극장>에 나타난 다문화 방영물 서사 분석: 이야기 구도와 등장인물, 발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권 4호, 184-209.
- 심훈 (2013). 다문화 휴먼 다큐멘터리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 KBS <인간극장>에 등장하는 결혼 이주민의 언술 행위 중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7권 4호, 131-167.
-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상수·김이선·마경희·문희영·이명진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정혜 (2007). 소수 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7호, 47-164.
- 우충완·우형진 (2014).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제도포비아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

- 연구), 17호, 185-227.
- 원숙연 (2011).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권 4호, 561-589.
-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권 1호, 143-192.
- 이상길·안지현 (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58-83.
- 이웃집 찰스 (2018, 7, 11). URL: <https://namu.wiki/w/이웃집%20찰스>
- 이은영 (2013). <한국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나타난 외국인 등장인물의 인구학적 특성과 묘사에 대한 분석: 2000-2011년 국내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방영된 드라마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희·황경아 (2013). 다문화관련 미디어보도 프레임에 대한 메타분석. <다문화사회연구>, 6권 2호, 83-108.
- 이자형·김경근 (2012).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권 3호, 163-192.
- 이재승·박경숙 (2013). 지역 텔레비전의 다문화 관련 뉴스 프레임 분석: KBS제주, 제주MBC, JIBS, KCTV JEJU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3권 1호, 326-358.
- 이재완 (2013). 외국인 신뢰가 다문화정책 지지에 미치는 효과분석: 서울시의 외국인 이주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권 4호, 285-315.
- 이제 만나러 갑니다 (2018, 7, 14). URL: [https://namu.wiki/w/이제%20만나러%20갑니다\(프로그램\)](https://namu.wiki/w/이제%20만나러%20갑니다(프로그램))
- 이종두·백미연 (2012). 한국의 특수성과 다문화 정책. <국제관계연구>, 17권 1호, 335-361.
- 이현정·안재웅·이상우 (2013). 다문화 콘텐츠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언론학보>, 57권 3호, 34-57.
- 인태정 (2009).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3권 2호, 339-369.
- 임동진·박진경 (2012).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태도와

- 성향 분석: 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16권 2호, 29-62.
- 장승진 (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4권 3호, 97-119.
- 정연구·송현주·윤탈일·심훈 (2011). 뉴스 미디어의 결혼이주여성 보도가 수용자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405-427.
- 정의철 (2013). 다문화사회 소통과 미디어정책: 정책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7권 5호, 244-284.
- 정의철·이창호 (2007). 혼혈인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84-110.
- 조운용·임영호·허윤철 (2016). 혐오성 댓글의 제3자 효과: 댓글의 속성과 이용자의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9호, 165-195.
- 주혜연·노광우 (2013). 드라마 속에 재현된 외국인과 한국의 다문화주의. <만화에 니메이션연구>, 32호, 335-361.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201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준·설동훈 (2006). <한국의 이념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허윤철·임영호 (2015). 외국인 범죄 뉴스 접착이 수용자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6권 3호, 267-302.
- 허윤철·임영호 (2016). 범죄 뉴스 노출과 다문화수용성: 위험지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6호, 92-123.
- 허윤철·임영호·조운용 (2017). 지역과 국가수준의 사회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디아스포라연구>, 11권 2호, 51-88.
- 홍숙영 (2013). 다문화 TV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러브인 아시아' 프로그램 시청을 중심으로 한 통제집단 사후설계 실험. <디지털융복합연구>, 11권 7호, 19-26.
- 홍지아·김훈순 (2010). 다인종 가정 재현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담론: TV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5호, 544-583.
- 황성욱·조운용·이철한 (2014). 다문화수용성,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문화수용성 측정 지수 개발. <분쟁해결연구>, 12권 3호, 167-196.

- 황영미 (2011). 한국 영화에 나타난 다문화 양상 연구. <영화연구>, 47호, 239-262.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권 4호, 152-184.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 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Perseus Books.
- Altemeyer, B. (1981). *Right-wing authoritarianism*. Manitoba: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 Appel, M. (2008). Fictional narratives cultivate just-world beliefs. *Journal of Communication*, 58(1), 62-83.
- Blalock, H. M. (1967). *Toward a theory of minority-group relations*. New York: Capricorn Books.
- Castles, S., de Haas, H., & Miller, M. J. (201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Guilford.
- Chiricos, T., McEntire, R., & Gertz, M. (2001). Perceived racial and ethnic composition of neighborhood and perceived risk of crime. *Social Problems*, 48(3), 322-340.
- Dixon, T. L., & Azocar, C. L. (2006). The representation of juvenile offenders by race on Los Angeles area television news. *The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s*, 17(2), 143-161.
- Doob, A. N., & Macdonald, G. E. (1979). Television viewing and fear of victimization: Is the relationship cau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2), 170.
- Eitle, D., & Taylor, J. (2008). Are Hispanics the new 'Threat'? minority group threat and fear of crime in miami-dade county. *Social Science Research*, 37(4), 1102-1115.
- Espenshade, T. J., & Hempstead, K. (1996). Contemporary American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0(2), 535-570.
- Esses, V. M., Dovidio, J. F., Jackson, L. M., & Armstrong, T. L. (2001).

- The immigration dilemma: The role of perceived group competition, ethnic prejudice, and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389-412.
- Esses, V. M., Jackson, L. M., & Armstrong, T. L. (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An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699-724.
- Fox, C. (2004). The changing color of welfare? How Whites' attitudes toward Latinos influence support for welfa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3), 580-625.
- Gerbner, G., & Gross, L. (1976). Living with television: The violence profile. *Journal of Communication*, 26(2), 172-194.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0). The "mainstreaming" of America: Violence profile no.11. *Journal of Communication*, 30(3), 10-29.
- Hawkins, R. P., & Pingree, S. (1982). Television influence on constructions of social reality. In D. Pearl, L. Bouthilet, & J. Lazar (Eds.), *Television and behavior: Ten year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the eighties* (Vol.2, pp.224-247). New York: Guilford Press.
- Hood, M. V., & Morris, I. L. (2000). Brother, can you spare a dime? Racial/ethnic context and the Anglo vote on Proposition 187. *Social Science Quarterly*, 81(1), 194-206.
- King, R. D., & Wheelock, D. (2007). Group threat and social control: Race, perceptions of minorities and the desire to punish. *Social Forces*, 85(3), 1255-1280.
- Kymlicka, W. (2003). Multicultural states and intercultural citizens.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1(2), 147-169.
- Mastro, D. E. (2003). A social identity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elevision messages. *Communication Monographs*, 70(2), 98-113.
- Mastro, D. E., & Stern, S. R. (2003). Representations of race in television commercials: A content analysis of prime-time advertising.

-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7(4), 638–647.
- Morgan, M., & Shanahan, J. (1997). Two decades of cultivation research: An appraisal and meta-analysis.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20(1), 1–45.
- Osbeck, L. M., Moghaddam, F. M., & Perreault, S. (1997). Similarity and attraction among majority and minority groups in a multicultural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1(1), 113–123.
- Palmer, D. L. (1996). Determinants of Canadian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More than just racism?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8(3), 180–192.
- Pantoja, A. (2006). Against the tide? Core American values and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policy in the mid-1990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2(3), 515–531.
- Schalk-Soekar, S. R. G. & Van de Vijver, F. J. R. (2008).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A study among dutch majority membe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8), 2152–2178.
- Woo, H. J., & Dominick, J. R. (2003). Acculturation, cultivation, and daytime TV talk show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1), 109–127.
- Yi, J., & Jung, C. (2015). Debating multicultural Korea: Media discourse on migrants and minorit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Ethnic & Migration Studies*, 41(6), 985–1013.

최초 투고일 2018년 02월 28일

논문 수정일 2018년 03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8년 08월 11일

Abstract

Effects of Watching Multicultural Television Programs on Discriminatory Acceptance

Yun Cheol Heo

Instruct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Yung Ho Im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Yoon Y. Cho

Instruct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With an increasing public attention to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television programs featuring foreigners or migra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become staple. There has been sporadic research on the impact of watching such program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Yet, a systematic inquiry into over-all and cumulative effect of viewing such contents is still rarely on the agenda among Korean scholars. To fill in the research gap, this papers deals with relatively long-term effects of viewing television programs on public attitude to multiculturalism. Specifically, this article analyses how 'sporadic' or 'periodic' viewing of multicultural television programs influences discriminatory acceptance, as well as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results reveal that, while both sporadic and periodic viewing yields no significant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periodic viewing tends to induce discriminatory acceptanc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multicultural television program, cultivation analysis, periodic viewing effects, multicultural acceptance, discriminatory acceptance